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2022년 7월 17일 (주일) 오전 예배

주일 말씀 요지 / 김 요 한 목사

Memory Text:

"And it came to pass, that, as he was praying in a certain place, when he ceased, one of his disciples unto him saith, Lord, teach us to pray, as John also taught his disciples. (Luke 11:1)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한 사람이 말하되 주여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가르치소서 하니라. 눈 11:1

In the Lord's exemplary prayer is to be found the perfect way. There is the proper beautiful, the proper perfect, to be found in the Lord's exemplary prayer. Jesus said, Pray thus: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sins, as we also have forgiven everyone who sin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Amen.

주님의 모범적 기도에서 완전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적절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고, 적절하고, 완전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여 이름이 거룩하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한 것에서 구하소서 하라 아멘.

Short, yet all-inclusive and without repetitions, it teaches, in a few words, the spirit of true prayer. Prayer is not a mechanical, lifeless, or a mere formal exercise, but it is a living and a very earnest, and very, very, very,

Oh, Restore Us Again
지금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소서

Read Psalm 60:1-5. For what occasions do you think this psalm would be a suitable prayer? How can we benefit from the psalms of lament even in joyous seasons of life?

시편 60:1-5을 읽습니다. 이 시편이 어떤 경우에 적합한 기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인생의 즐거운 계절에도 애가의 시를 통해 어떻게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Thou hast given a banner to them that fear thee, that it may be displayed because of the truth.' Psalm 60:4. TDG 31.1 (This Day With God page 31.1 - Ellen G. White)

"주께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셨으니 이는 진리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하심이니라". 시편 60:4. TDG 31.1

"See that the truth is inscribed on your banner at all times and in all places.... TDG 31.2

"언제 어디서나 네게 진실이 새겨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TDG 31.2

As a nation the Jews refused to receive Christ. He had led them in their travels, as their invisible, infinite Leader. He had communicated His will to them, but in the test they rejected Him, their only hope, their only salvation, and God rejected them. "But as many as received him, to them gave he power to become the sons of God, even to them that believe on his name" (John 1:12). To all who receive and obey the conditions, God's gifts flow steadily, without repentance, without recall. God has imparted His gifts to man to be used, not according to hereditary or fanciful ideas, not according to natural impulses or inclination, but according to His will.... TDG 31.3

유대인들은 민족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무한한 지도자로서 그들의 여정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그분의 뜻을 전하셨지만, 그들은 시험에서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자 유일한 구원이신 그분을 거부했고, 하나님도 그들을 거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조건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하심의 선물은 꾸준하게 깊이도, 회상하지 않이도 부족 히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전이나 공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자연적인 충동이나 성향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따라 사용되도록 인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TDG 31.3

Those who feared God were to think for themselves. They were no longer to leave other men to do their thinking. Their minds were no longer to be chained down to erroneous maxims, theories, and doctrines. Ignorance and vice, crime and violence, oppression in high places, must be unveiled. The Light of life had come to this world to shine amid the moral darkness. The gospel would now be proclaimed among the poor, the oppressed. Those in humble life would be given opportunity to understand the real qualifications necessary for entrance into the kingdom of God. TDG 31.4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지 않도록 하기 않도록 하기. 그들의 정신은 더 이상 잘못된 격언, 이론, 교리에 묶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무지와 악덕, 범죄와 폭력, 높은 지위의 억압이 드러나야 했습니다. 생명의 빛이 도덕적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제 복음이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선포될 것입니다. 겸손한 삶을 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입장하기 위해 필요한 진정한 자격을 설명할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TDG 31.4

And today men from the lower ranks are to take their place in obeying the command, "Go forward." By faith they are to meet difficulties, not daring to yield to the strife and babble of undeveloping tongues. They are to press forward from one degree of success to another, praying always, and exercising that faith which answers prayer.... TDG 31.5

그리고 오늘날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며, 불신앙의 방언과 다툼에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은 항상 기도하며 기도에 응답하는 믿음에 의지하면서 한 단계의 성공에서 다른 단계로 전진해야 합니다.... TDG 31.5

The agencies of God are many! But all those who are willing to work according to God's plan are included in the words, "Ye are God's husbandry, ye are God's building" (1 Corinthians 3:9). God's servants are to move so that no spiritual gift shall be lost. Their will is to be held in abeyance, and when God's time comes, the rod will blossom. What then the work will take no one can know, but God's servants are to be minutemen, able to understand the ways and will of their Leader.—Letter 8, January 23, 1899, to Dr. J. H. Kellogg, medical superintendent of the Battle Creek Sanitarium. TDG 31.6

하나님의 기관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기꺼이 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니"(고린도전서 3:9)라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영적 은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움직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잡 긴작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 지팡이가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의 지도자의 길과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마니랍이 되어야 합니다.-1899년 1월 23일, 배틀 크릭 요양원의 의료 감독관인 캘로그 박사에게 보낸 편지 8장. TDG 31.6

더 깊은 연구를 위해

"Through song, David, amidst the vicissitudes of his changeful life, held communion with heaven. How sweetly are his experiences as a shepherd lad reflected in the words: Ed 164.1
(Education - Ellen G. White)

"다윗은 변화무쌍한 인생의 굴곡 속에서 노래를 통해 하늘과 교제했습니다. 양치기 소년이었던 그의 경험이 얼마나 감미롭게 시편에 반영되어 있는가: Ed 164.1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He maketh me to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eth me beside the still waters....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Thou art with me; Thy rod and Thy staff they comfort me." "Psalm 23:1-4. Ed 164.2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니이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시편 23:1-4. Ed 164.2

"In his manhood a hunted fugitive, finding refuge in the rocks and caves of the wilderness, he wrote: Ed 164.3

"그는 젊은 시절에 사냥에 쫓기던 도망자로 광야의 바위와 동굴에 피난처를 찾았다고 썼다: Ed 164.3

"O God, Thou art my God; early will I seek Thee: My soul thirsteth for Thee, my flesh longeth for Thee, In a dry and weary land, where no water is....Thou hast been my help, And in the shadow of Thy wings will I rejoice." Ed 164.4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일찍이 주를 찾으리이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신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물이 없는 메마르고 피곤한 땅에서 주께서 나와 도움이 되셨으니 주의 날개 그늘에서 내가 즐거워하리이다". Ed 164.4

"Why art thou cast down, O my soul? And why art thou disquieted within me? Hope thou in God: For I shall yet praise Him, who is the health of my countenance, And my God." Ed 164.5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버림을 받았는가? 내가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는 내가 여전히 내 얼굴의 건강자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찬양할 것임이니라." Ed 164.5

"The Lord is my light and my salvation; Whom shall I fear? The Lord is the strength of my life; Of whom shall I be afraid?" Psalm 63:1-7; 27:1; 42:1; 27:1. Ed 164.6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 여호와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이까?" 시 63:1-7, 시.; 42:1; 27:1. Ed 164.6

"The same trust is breathed in the words written when, a dethroned and crowless king, David fled from Jerusalem at the rebellion of Absalom. Spent with grief and the weariness of his flight, he with his company had turned beside the Jordan for a few hours' rest. He was awakened by the summons to immediate flight. In the darkness, the passage of the deep and swift-flowing stream must be made by that whole company of men, women, and little children; for hard after them were the forces of the traitor son. Ed 164.7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위에서 쫓겨나 왕관도 없이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큰 괴로움 같은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슬픔과 피곤에 지친 다윗 일행은 잠시 쉬기 위해 강변에서 몇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도망치라는 명령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깊고 빠르게 흐르는 시냇물을 건너는 일은 남자와 여자, 어린 아이들로 이루어진 일행 전체가 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배신자 아들의 세력이 그들을 뒤덮고 있었기 때문이다. Ed 164.7

In that hour of darkest trial, David sang: Ed 165.1

가장 어두운 시련의 순간에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Ed 165.1

"I cried unto the Lord with my voice, And He heard me out of His holy hill. Ed 165.2

"내가 내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 성의 거룩한 언덕에서 나를 들으셨다. Ed 165.2

"I laid me down and slept; I awaked; for the Lord sustained me. I will not be afraid of ten thousands of people, That have set themselves against me around about." Psalm 3:4-6. Ed 165.3

"내가 나를 눕히고 자고 깨어났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지탱해 주셨음이라. 나는 나를 둘러싸고 나를 대적하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3:4-6 Ed 165.3

추가 연구가 필요하면 연락드리 문의하세요:
Whatsapp: (+63)901-954-0737
contact@adventistbibleschool.org